

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여행업계 협조 요청 사항

'20. 1.20.(월) / 관광기반과

□ 배경

- 최근 이란 정세,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, 안나푸르나 인명사고 등 해외여행에 대한 불안 요소 증가
 - 특히, 최근 중국 춘절기간 도래 및 중국 우한 폐렴 확산 속도를 지켜볼 때, 우리 국민에 대한 감염증 전파 확산 우려
 - 이러한 위험에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기 위해 업계에 협조 요청

□ 요청사항

- ① (기획 예정인 상품) 이란, 중국 우한, 네팔 등 인접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상품 기획 자제
 - 가장 쉽고 안전한 사고 대처 방법은 위험 지역에 가지 않는 것임
- ② (이미 판매한 상품) 감염병 위험지역인 우한의 경우, 중국내 다른 지역으로 일정 변경 또는 상품별 안전대책 수립 시행
 - 출발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은 상품은 여행일정 변경 권고
 - ※ 여행사별 대체 상품 개발 제시
 - 출발 예정일이 1개월 이내 남은 상품은 여행일정 변경 권고, 불가피한 경우 상품별 안전대책 수립 시행
 - ※ 특히 여행자에게는 신변안전 및 감염주의 메시지 전파(야간통행 금지, 유증상자 신고, 개별 행동 자제 등), 통역안내사에게는 사고 대응 매뉴얼 배포 등 사전 교육 시행
- ③ (공통 안전 대책) 모든 해외여행 상품에 대해, 관광종사원(통역안내사, 여행인솔자)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
 - 특히, 현지 관광종사원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(+82-2-3210-0404)에 바로 연락하여 지원요청
 - 외교부,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행안전정보를 적시성 있게 공유하고 해당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지침을 적극 이행
 - 여행업계가 마련한 해외여행 비상대응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전체 종사원이 함께 공유